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2014년 정기이사회를 1월 30일 저녁에 돌로스선교회에서 개최했다.

미주성시화 이사회 “주님 위해 궁극적 공헌하자”

성시화 운동본부는 목회자홀리클럽 세울 계획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2014년 정기이사회를 1월 30일 오후 5시 30분에 돌로스선교회(황의정 목사)에서 개최했다.

식사와 교제로 시작된 모임은 2부 예배와 3부 기타 토의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 예배는 사회 최대영 이사장, 기도 최정학 이사, 성경봉독 강성봉 이사, 특별찬송 조이폴선교중앙단, 설교 황의정 목사, 성시화 사역소개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특송 이의경 권사(사랑의 빛선교회), 간증 황부성 부이사장, 광고 이학진 총무, 축도 황의정 목사 순으로 열렸다.

‘궁극적 공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황의정 목사는 잘 마치는 삶의 특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 △배움의 태도를 지니고 다양한

것으로부터 배움을 갖되 특히 삶 속에서 배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진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분명히 나타남 △하나 이상의 궁극적인 유산공헌을 남김 △그들은 그들의 숙명을 점차적으로 의식하고 그것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공헌이란 개념의 중요성으로 “지도자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섬길 남은 세월이 얼마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은 세월 동안에는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궁극적 공헌 개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젊은 지도자들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사역에서 훨씬 일찍부터 궁극적 공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인 공헌을 발견하는 4가지 유형으로 황 목사는 △수명: 일생을 위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궁극적 공헌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됨 △표류: 단계별로 인도함을 받아 궁극적 공헌을 남기게 되는 유형. 각 단계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단계를 위한 성취가 된다. △발견: 우연히 중요한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을 하여 궁극적 공헌을 남기게 되는 유형. 필요에 자신을 헌신한다. △의도적 발견: 성장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 의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거나 역할 감당을 위한 훈련을 추구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여 궁극적 공헌을 남기게 되는 경우. 집중된 노력이 궁극적 공헌이 된다 등의 예를 들었다.

토마스 멩 기자

슈퍼볼 우승 시애틀 시혹스

“예수님은 슈퍼볼보다 귀한 것”

시애틀 시혹스가 지난 2일 뉴저지 메트라이프스타디움서 열린 제 48회 슈퍼볼 경기에서 덴버 브롱코스를 43-8로 제압하고 창단 38년 만에 슈퍼볼 챔피언을 차지한 가운데, 슈퍼볼 게임 전 시혹스 선수들이 “예수님은 슈퍼볼보다 귀한 것”이라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애틀 시혹스 선수들은 시애틀 마스힐처치 마크 드리스콜 목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수님은 NFL 경력이나,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심지어 슈퍼볼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다. 인터뷰에는 쿼터백 러셀 윌슨을 비롯해 레프트 오픈스 태클 러셀 오경, 세이프티 크리스 마고스, 롱 스탭퍼 클린트 그레삼과 코칭스태프인 락키 세토가 함께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이어갔다. 그들은 슈퍼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쿼터백 윌슨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안식할 누군가를 찾게 된다”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그 곳에 계신다”고 고백했다. 러셀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고백했다. 크리스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삶이 공허하고, 죄로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한편 시혹스는 1쿼터 12초만에 득점하며 슈퍼볼 역사상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세웠으며, 2쿼터 전반까지 덴버 브롱코스를 22-0으로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쿼터백 대결에서 시혹스의 2년차 쿼터백 러셀 윌슨은 통산 4차례 MVP 기록을 가진 페이튼 매닝에 월등히 우세한 경기력을 펼치며 이날 경기를 제압했다. 역대 2회 우승 경험이 있는 덴버는 막강한 공격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시애틀 시혹스를 맞아 실수와 연속 실점으로 참패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슈퍼볼 챔피언십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시애틀 시혹스 쿼터백 러셀 윌슨

“목회자가 동성결혼 거부해도 소송 안 당해” 법 부결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목회자를 동성결혼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 부결됐다. SB6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길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을 심사한 해당 위원회에서는 4-3으로 이를 부결 처리했다. 이미 주 헌법에 “주민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어 목회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기에 SB66은 불필요하던 것이다. 이 법안은 “교회나 종교단체의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

적 믿음에 반하는 어떤 형식의 결혼을 주례하거나 장소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하지 않

더라도 결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은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 2면에 계속

나라정비 ASE
유림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기독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INCHRIST COMMUNITY CHURCH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세리토스 1부 / 오전 8:00 채플 2부 / 오전 10:00	밸리 1부 / 오전 10:00 채플 2부 / 오전 11:45
영성 집회	목요일영성집회 저녁 7:45 / 장소: 다운니채플 금요일영성집회 저녁 7:45 / 장소: 밸리채플	
새벽 예배	세리토스 새벽 5:30(월-금) 채플 장소: 비전채플	밸리 새벽 5:30(월-금) 채플 새벽 6:00(토)

교회 채플안내	Church Information
세리토스채플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E-mail: iccc.office1@gmail.com | Web: in-christcc.org

온 맘 다해 하나님 사랑, 본질 추구하는 목회

OC교협 주최, 장경동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열려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 연합으로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목회자세미나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 연합으로 장경동(대전중문교회)·김우곤 목사(성민교회)가 초청돼 영적대각성집회가 지난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열린 가운데, 2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목회자세미나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강사로 선 장경동 목사는 이날 '첫 계명'과 '목회의 본질'에 주목할 것을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며 "아브라함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매일 1천만원씩,

2천년을 드러도 다 못 드릴 금액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며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정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자 목회자의 그릇이다. 우리가 주님의 요구를 부담으로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길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요즘 목회자들의 문제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부분으로 가는 목회의 방향성"이라며 "목회자들끼리 서로 주일 예배

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목적 달성을 위해 나가는 모습이 아쉬운 현실이다. 너무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감으로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은 소수일 수록 중요한 설교를 하셨고, 스테반이 역사 설교로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이, 첫계명을 잘 지키고 본질을 따라 감으로 여러분의 목회가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45분에, 28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열린 집회는 "하나님은 희망이시라"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마스 맹 기자



들로스선교교회가 선교사 파송감사예배를 2일 오전에 본당에서 드렸다.

10주년 맞은 들로스선교교회 선교사 파송예배 드려

들로스선교교회(황의정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2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A국으로 파송되는 이00·김00 선교사는 인사의 자리에서, "교회 창립 10주년의 귀한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안다"며 "A국에 20여년 동안 다니면서 선교를 해와, 은퇴를 생각해왔지만 다시금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진다.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혼들의 마음을 얻도록 힘쓰겠다.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황의정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라며 "교회는 죄인을 건져내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교사 파송식에서 브라질과 포나페에 각각 활동하는 정승권·황정희 선교사, 정기중·윤한나 선교사가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으며, 이00·김00 선교사 안수식에는 이기홍·홍순도·박승로·황의정 목사, 조정차·신육암·최효식·김인태 장로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교회는 서울 열방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6일(목)부터 9일(일)까지 목·금·토 오후 7시 30분, 금·토 오전 5시 20분, 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에 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인랜드올리브장로교회, 새성전 입당해



인랜드올리브장로교회가 26일에 입당감사 예배를 거행했다.

인랜드올리브장로교회(강신형 목사)가 1월 26일(주일)에 입당감사 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강신형 목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름답고 멋진 성전과 교육

관, 그리고 식당이 있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KPCA 부총회장 노진걸 목사는 "물 떠오는 하인들"(요한복음 2:1-11)이란 제목

으로 전한 가운데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가능하게 하고 또 모든 축객에게 기쁨을 준 것은 바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다"며 "하나님께서 입당을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물 떠오는 하인이 되어 더 큰 표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축사를 맡은 이용덕 목사(창립 목사)는 축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었음을 격려하면서 큰 절로 감사를 표했다. 멜로디 신 사모(신태희 목사 부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독창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서중노회장 최상철목사(멕시코칼리 장신대학장)의 축도로 입당 감사예배를 마쳤다. 박창민 기자

1면에 이어서 계속

이 법안의 발의자인 어니 오틴 의원은 "주정부가 현재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하더라도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목회자이기도 한 스티브 히키 의원은 "이 법안은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요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되고야 말았다.

현재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교인들을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압박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동성결혼이 헌법상 금지된 오래된 주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케익을 판매하길 거부했던 빵집 주인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폐업했다.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오래된 주에서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결혼식에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기도 하다. 헌법으로 동성결혼식을 금지하더라도 기독교가 이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는 꽃집 주인이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며 뉴멕시코 주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사진 촬영을 거부했던 사진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신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4년도 학생 모집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 ❖ 신학학사
 - ❖ 기독교 교육학사
 - ❖ 종교 음악 학사
 -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 대학원과정(Master) 3년
 - ❖ 기독교 교육석사
 - ❖ 종교 음악 석사
 - ❖ 신학석사
 - ❖ 목회신학 석사
 -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 박사과정(Doctor) 2년
 - ❖ 기독교 교육학 박사
 - ❖ 목회신학 박사
 - ❖ 신학 박사
 - ❖ 종교철학 박사
 -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4년 가을학기 교수모집

- * 기독교 윤리학
- * 성경적 리더십
- * 이단 종파

www.mrtsusa.org

● 교무처:(323)428-7878 ● 교학처:(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2014년 Spring Semester Time Table 봄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신론) Systematic Theology II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구약 역사서 O.T. Historical Books	김 철 박사 Dr. Chul Kim
◆ 기독교 교육학 1 Christian Education I	임영호 박사 Peter Yongho Yim
◆ 교회음악 2 Church Music II	정귀숙 박사 Chung Kwi Sook
◆ 고린도전후서 I, II Corinthians	김경수 박사 Kyung Soo Kim
◆ 전도학 Evangelism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요셉 술람 장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한 진리는 잘못”

요즘 이삼십대 크리스천 교파 교단 초월해 연합사역 활발



요셉 술람 장로가 작은자UBM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정통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요셉 술람 장로(Joseph Sulam)가 작은자UBM교회에서 지난 1일과 2일 집회를 인도했다.

술람 장로는 2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요 1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술람 장로는 “이 시대 사람들은 모든 진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이라고 말한다”면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정색을 보고서 검정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파랑색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짙은 회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길이요 진

리요 생명이요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만 해도 수많은 종파와 교단이 있다. 다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이삼십대 청년들은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가 상관없고,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술람 장로는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연합사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

에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에 도전하는 상대주의와 세속적 문화에 기독교인들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술람 장로는 정통과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며 정통 유대교육(Yeshiva)을 받던 중 스승인 랍비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는 하버드대학교의 전임 교수 초청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복음화에 헌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네티비아(Netivah)교회를 맡고 있으며, 이곳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방송 사역과 무료급식 구제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새언약교회 3주년, 장로 취임 및 권사 임직 예배

남가주새언약교회가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 장로 취임 및 권사 임직 예배를 2월 2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강양규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근영 목사(예성 서부지방회 서기, 라크라센타 새생명교회 담임)의 기도, 박용덕 목사(전 예성 미주총회장, 전 OC 교협 회장, 남가주빛나교회 담임)의 설교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요한계시록 2장 9절-11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장로로 취임하는 문장혁 장로와 권사로 임직하는 안필순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다. 최한오 목사(전 예성 미주총회장, 나성성교회 담임)가 권면, 최한현 목사(평화 의향구교회 담임)가 축사했으며 임직자 대표로 문장혁 장로가 답사를 전한 후 최한오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남가주새언약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슬로건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지난 2011년 1월 1일에 설립 되었다.

담임 강양규 목사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M.Div.)를 졸업하고 현재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D.Min) 박사 과정에 있다.

문의: 213-434-1083, www.nccch.org 박창민 기자



남가주새언약교회가 설립 3주년을 맞아 임직 예배를 2일 드렸다.

미국교회의 7가지 변화 “시니어(Senior) 목사 시대 가고 리드(Lead) 목사로”

미국교회가 변하고 있다. 목회 컨설턴트인 리처드 라이프웨이 리처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미국교회의 7가지 패러다임 변화(7 Paradigm Shifts in American Churches)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7가지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진 않지만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시니어 목사(senior pastor)에서 리드 목사(lead pastor)로의 변화다. 한인교회의 상황에서는 둘 다 결국 담임목사이지만, 시니어 목사가 고전적인 교회 구조 속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는 목사라면, 리드 목사는 교회의 목회 사역을 이끌어 가는 팀 내에서의 의장 격이다. 예를 들

면, 과거에는 담임목사가 부목사들에게 그들의 담당 사역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식이었다면, 요즘은 소위 팀 목회라 대세다. 교회의 비전을 목회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목회자들과 회의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의장으로서의 담임목사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뢰에서 시험으로의 변화다. 과거에 목사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요즘은 가혹한 비판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아졌다. 목사들이 성도들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현상은 그만큼 목회에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번째는, 교단과의 관계다. 과거 교회들은 사역의 리소스를 교단에 많이 의지했다. 교단들도 산하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각종 리소스를 개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요즘 교회들은 교단에 필적할 만한 규모를 가진 대형교회들로부터 리소스를 제공받는다.

네번째는 한 교회 내에서 설교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명의 목회자가 설교를 홀로 감당했지만, 요즘은 여러 명의 설교자가 교회에 존재하며 그들이 돌아가며 설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작은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섯번째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데

려 오려던(attractual) 시대가 가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보내는(incarnational) 시대가 됐다. 과거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 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요즘은 성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찾아 오신 성육신(incarnation)의 사건이 주목받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지리적 제약에서 사권의 확대로 변화다. 교회들은 자신을 교단에 의해 혹은 위치에 의해 구분해 왔다. 그래서 같은 교단 소속 교회, 같은 지역 교회일 경우 친밀감을 느꼈다. 하지만 요즘은 지역을 초월해 같은 비전을 공유하거나 같은 프로그램

을 도입한 교회가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인교회에서도 발견되는데, 과거에는 목사들이 모이면 ‘우리 교단 목사님’을 찾았지만 요즘은 ‘우리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같이 단기 선교 했던 교회 목사님’을 찾는다.

마지막은 기대 상승이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매우 높은 기대를 한다. 이 일 저 일 많이 벌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와 사역에 대한 기대에 소위 과묵한 편이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던 시대는 가고,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사역을 활발히 하는 교회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김나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정하게 웃음으로 생명을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예수 죽으심은 선택받은 자 위해? 온 세상 위해?



마이클 L. 브라운 박사와 제임스 화이트 박사

지난 25일 메시아니즘(예수를 믿는 유대인) 변증학자인 마이클 L. 브라운(Michael L. Brown) 박사와 알파와 오메가 사역(Alpha and Omega Ministry)의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 박사는 RevelationTV.com에 출연해 이 같은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복음주의 개혁파 변증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화이트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아들·성령의 의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약속된 죽음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약의 형식으로 처리하셨다. 새로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다. ... 이 언약은 특정한 대상이 있었고, 약속된 자들에게 특별하고 온전한 효력을 지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이를 통해 그들을 대신해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했다.

헬라어와 조직신학을 비롯해 변증론의 다양한 주제를 섭렵한 화이트 박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히브리서 9: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들

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드러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인 ‘The Lind of Fire’를 맡고 있는 브라운 박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Fellowship for International Revival and Evangelism School of Ministry 교장이자 실용신학 교수이자 ‘양심의 연합(Coalition of Conscience)’ 대표이기도 한 브라운 박사는 “성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들어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선택된 자들만 의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한복음 2:2-6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3-6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실 만한 것이니 나

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말씀을 덧붙였다. 그러나 브라운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려고 예정하셨다고 믿지 않는다.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을 때만 온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왜 책임을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화이트 박사는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중재하신다면, 왜 일부에 대해서는 그 중재가 실패하고 있는가? 믿음과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박사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도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결과도 예상하셨을 것이다. 이 같은 예지와 자유의지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 하나님은 그에게 속하기 위한 부르심에 대해 사람이 응답하도록 지어 놓으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한 참가자가 화이트 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화이트 박사는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의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강혜진 기자



수잔 솔티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강연 모습.

북한 인권운동의 대명사 수잔 솔티, 하원의원 출마

디펜스포럼의 대표이면서 북한 인권 운동의 대모인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여사가 SNS를 통해 “올해 11월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재정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티 여사는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월터 저드 자유상(Walter Judd Freedom Award), 한국 수교 훈장 송재장, 서울평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녀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문회를 1999년 4월 처음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고, 상원 법사위원회와 하원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정치범수용소, 중국 내 탈북난민들의 고통 등 북한인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해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2003년에는 최귀 탈북자였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시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미국 및 전세계에 알렸다.

또 미국에서 ‘2004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조직하고, 국회의사당과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북한의 여러 불법활동과 일본인 납치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중국 내 탈북난민 복송중단을 위해 ‘북한 주민에 자유(Free North Koreans)’이라는 글이 새겨진 고무팔찌 착용운동을 펼치는 한편, 중국 내 탈북난민들의 고아를 입양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솔티 여사가 출마하는 버지니아 11선거구는 고소득 계층이 살아가는 페어팩스 카운티와 북버지니아의 대표적 한인타운인 애너데일을 포함한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다.

김영신 기자

외기협, 日 정부에 ‘증오발언 중단’ 촉구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협의회(외기협)가 지난달 23~24일 일본기독교회관에서 ‘제28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기협은 이번 전국협의회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공격적인 차별선동(증오발언, Hate speech)에 대해 규탄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

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각 교파·단체 대표자 35명이 참가했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 외국인 피해자 현황과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항하며,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외기협은 선언

문 발표를 통해 “2013년에는 외국인 주민과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배외적·폭력적·공격적인 차별선동(증오발언, Hate speech)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그 인권을 지키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인종차별철폐법’의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윤 기자

한인 교계 지도자들 맥컬리프 VA 주지사에 안수기도



VA 주지사에게 안수기도하는 모습.

한국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극동방송 미동부위원회 홍희경

회장이 지난 1월 25일 타이슨스 코너 소재 웨라호텔에서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안호영 주미대사, 이원상 목사 부부, 류용렬 목사 부부도 함께했으며, 이원상 목사와 류용렬 목사, 김장환 목사, 홍희경 장로는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안수기도했다.

조요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을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삼성 이 하면 다 릅니다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마음편한 이사

가주 삼성 통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主)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가주 삼성 통운”은 명예와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무료 전화 1-877-580-2424

상우슈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선교의 다양성

빌립보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빌립보서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심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1년 반동안의 사역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와 목자를 세우셔서 많은 양떼들을 교회로 불러 주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천국에 가도록 영적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지옥 길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생명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들어 오 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생활을 하되 교회 가는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말,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목자가 자기 생각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야하며 그 양떼들로 하늘소망을 가꾸어 지옥 길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자의 책임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고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달하고 싶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말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뿌리치고 받지 않고 때로는 받았다가 땅에 버리고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가서 씨를 뿌려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 습니다. 그때 마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늘 파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마늘 파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나가보세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늘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장사하는데 와서 방해할 하는 거야” 하면서 저리 가라고 했답니다. 이말에 이 여직사는 “별말 다 보겠네. 예수 믿고 천당에 가라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랄이야”라고 하니 그 마늘 팔던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달려들어 머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서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여직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그 시장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을 지나다보니 작년엔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마늘 장사 가게 앞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전도하려고 보니 그 가게 금고 옆에 성경, 찬송이 포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직사는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요?” 하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녔냐고 물으니 작년 이맘때쯤 어떤 미친여자가 “천당가라는데 왜 지랄이나”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도 귀에서 땀땀고 잠도 못자게 울려서 집 근처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

자마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 다니지 1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여직사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군대의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엘리사에게로 이끌었고 결국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나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볼 때 비교도 안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고침을 통해 온 아람나라가 알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방법의 다양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 이 소녀와 같이 세상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함몰하여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싹이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할 형편이 못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절세의 현상에서 자기가 믿는 진리의 신령한 기쁨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고 명분이나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활력소가 된다”는 고백과 함께 신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정통한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진리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복음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게 하신 기간 동안에는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계속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늘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영생의 벅찬 소망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 자기들같이 소망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힘쓰고 애쓰며 선교하는 사도바울의 선교성과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힘 있게 뒷바라지하는 일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깊이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도

한 영혼이라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으며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힘을 실어 주어서 구령의 성과가 늘어나도록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하늘 소망의 후사로 구원얻게 하는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나가 직접적으로 성령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직사님이 초등학교도 못나왔지만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니 그 모든 말씀이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위한인종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O.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p>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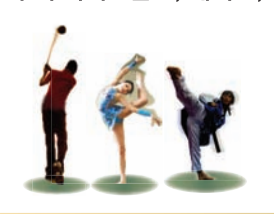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황금률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에 “황금률”(the golden rule)이라 이름 붙여진 성구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 6:31).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남이 바라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계명이고, 다른 계명은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 데는 약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원은 3세기 초반 로마의 제 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귀중히 여겨 궁궐과 집무실에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인 데에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황금으로 기록하여도 아깝지 아니한 예수님의 명언이며, 기독교 윤리관의 기초를 이루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여러 경전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람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황금률과 은률의 실천에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강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면 아니 됩니다. 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때문이지요. 남에게 배려하고 섬기면 됩니다.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받기 위하여 행하면 그것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기에,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易地思之, 역지사지)는 말은 우리가 선행을 시작하는 작은 출발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작합니다.

모순(矛盾)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옛날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여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창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것의 예리함은 천하일품,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 버립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찌 되는 거요?” 상인은 말문이 막혀 눈을 깜빡거리고 있다가 서둘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순(矛盾)이란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모(矛)는 창을 뜻하며, 순(盾)은 방패를 뜻합니다. 이후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깊이 살펴보면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 안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점들이 많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지만 독자를 바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꿈의 값을 치루는 것은 피합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목숨을 건 도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쓰임받는 삶을 원하지만 헌신은 사양합니다. 직분을 원하지만 섬김은 싫어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들어합니다. 교회는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교회가 곧 성도인데 말입니다). 신앙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

번역) 심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며, 그 심일조 정신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순된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모순된 신앙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면 독자를 바치는 것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꿈을 위해 치루는 값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면 헌신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직분을 원하면 섬김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복음전하는 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좋아한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원한다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을 원한다면 판단받는 것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을 원한다면 기도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재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심일조 생활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에 대한 평가를 원한다면 훈련받는 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순종 또한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푸는 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를 구한다면 이해하는 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모순신앙’입니다. 그렇기에 모순을 깨뜨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히 행해야 했다.(마태복음 23:23, 새

짧은 날, 긴 날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어제는 바쁜 날이었다. 새벽기도에 이어 수요여성예배 설교를 했고, 저녁에는 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영적대각성 집회가 있었다. 수요일 쯤이면 보통 주일 예배 설교의 윤곽도 잡혀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점심은 햄버거로 때우고 평소 하던 걷는 운동도 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길지 않았다. 수요여성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 전하는 말씀에 기쁨이 넘치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데 말씀 속에 발견한 은혜로 가슴이 뛰었다.

저녁 시간에 있었던 영적대각성 집회에는 내가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드려 연합집회였지만 남의 교회 예배 같지 않았다. 특별히 강사인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은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말씀이여 저나 재미있든지 두 시간 설교를 했는데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갔다. 참 대단하신 설교가였다.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과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목사님들과 간단한 교제를 나누었다. 집에 돌아오니 열 한시가 가까웠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수고가 있었지만 은혜와 보람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좀 길게 느껴지는 날이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몽고로 떠나는 선교사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까지는 참 좋았다. 짧은 종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큰 도전이 되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총회일로 여기저기서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하더니 오후 쯤에는 몇몇 목사님들이 몸소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 선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식이었다. 어쩌면 좋을지 여 몇 시간을 서로 끙끙 앓으며 대화

를 나누었지만 머리만 아플 뿐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힘드네 도대체 어쩌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다.

한 나절을 끙끙 앓고 났더니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큰일이다. 다행히 주일 설교 말씀을 어제 대략 마무리지어 놓은 것이 그나마 위로이다. 이런 마음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며 부르러 오셨다. 그 얼굴이 마치 천사였다. 악보까지 준비해 오셔서 설날노래를 부르시자는 집사님의 친진함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깔끔하게 준비된 저녁 식사에는 정성과 사랑이 넘친다.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느낀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둠의 터널을 벗어난다. 하마터면 긴 밤을 보낼 뻔 했다. 목회의 일상은 이렇게 긴 날과 짧은 날이 예측할 수 없도록 교차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이민교회와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고 풍성한 강연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01 1차 공개세미나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자녀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세미나"

2014년 2월 10일(월), 오전 11:00~오후 12:30

주제 : "세속의 도전과 신앙교육의 방향 제시"

강사 : 현용수 박사 - 쉐마교육연구원 원장 / Biola University, Talbot School of Theology, Ph.D.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교육> 외 다수

02 2차 공개세미나

"21세기 이민교회와 사회, 어떤 여성 리더십을 요구하는가?"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00~오후 12:30

주제 : "미주 한인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강사 : 임혜빈 회장 - KCCD :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회장 & CEO

03 3차 공개세미나

"칼빈의 정신은 죽었는가? 현대 사회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 재고하기"

2014년 4월 3일(목), 오전 11:00~오후 12:30

주제 : "칼빈은 살아있다. 교회 갱신을 위한 칼빈의 윤리신학적 적용"

강사 : 박성민 박사 - Azusa Pacific University 총장 특별자문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Ph.D.
 <Theological Ethics of Friedrich Schleiermacher>, <Holiness as a Root of Morality (편집)> 외 다수

04 공개컨퍼런스

"10년 후 차세대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미래를 진단한다"

2014년 4월 7일(월), 오후 1:00~4:30

주제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삿 2:10)

전체 순서 - 세션별 주제 및 강사 / 주최 및 후원 : KPCA L.A.노회

1:00~1:10	인사 및 소개		
1:10~1:15	특별 찬양		
1:15~1:55	첫 번째 발제	"차세대 사역의 역사적 진단 및 미래 동향"	강사 : 오정호 Director of Korean Church Engagement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1:55~2:35	두 번째 발제	"차세대 사역의 현대적 이슈 - 2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강사 : 이학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교수
2:35~2:45	휴식 및 간식		
2:45~3:15	세 번째 발제	"차세대 미래 사역을 위한 교회의 모델과 리더십"	강사 : Rebecca Y. Kim Pepperdine University 교수
3:15~3:55	네 번째 발제	"차세대의 선교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실제적 사역 개발"	강사 :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KPCA 교단 총회장
3:55~4:30	질의응답 및 차세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본 신앙사경회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9:00~오후 9:00

주제 :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와 목사"(마 9:16-17)

강사 : 호성기 목사 -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 해외한인장로회 (KPCA) 총회장



세계성공회 보수 지도자들, 동성애자 포용 제안 '거부'

영국성공회에 “어머니 교회가 죄를 조장” 유감 표시



2013년 세계성공회미래컨퍼런스(GAFCON)에 모인 성공회 보수 지도자들.

세계성공회 보수 지도자들이 영국 성공회 측의 동성애자 포용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세계성공회 본산인 영국 성공회 측에서는 보수 지도자들에게 “성공회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더 환영하는 곳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성애자들에 관한 성경적 고찰을 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아프리카 성공회 대주교들이 주축이 된 지도자들의 모임인 세계성공회미래컨퍼런스(GAFCON)측은 이 같은 제안을 강력히 거부했다

고 미국 에큐메니컬뉴스는 1일(현지 시각) 전했다. 컨퍼런스측은 “성공회의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이 죄라 하신 일’을 세계성공회에 조장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세계성공회는 동성애자 성직 임명과 동성결혼 축복 등 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보수와 진보주의자들의 견해가 대립해 왔으며, 지난 2003년 미국성공회가 공개적인 남성 동성애자를 주교로 임명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 갈등은 미국과 영국 등 동성애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영어권 교회들과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비영어권 교회들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공회 교회들이 속한 지역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물론 동성부부들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간다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최대 사형으로까지 다스리는 법안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동성애 정책에 서방 정부들은 인권 확대를 규정하며, 시정을 요청해 왔다. 한편, 우간다와 나이지리아는 영국에 이어서 가장 큰 규모의 성공회 교구를 거느리고 있다. 영국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에 우간다와 나이지리아 성공회 지도자들은 물론 정부측에 “동성애자들을 희생시키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순현정 기자

현학봉 주영 北대사 “케네스 배, 형기 다 채워야 석방될 것”



케네스 배 선교사의 기자회견 사진.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선고된 형기 15년을 다 채워야 석방될 것이라 전했다. 지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 대사는 전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가 때때로 사면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배씨가 사면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고 또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배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이 그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있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며 “배 씨가 형기를 다 채우면 그를 석방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현 대사는 “배 씨는 가족들과 미국 정부에 자신의 석방을 위해 더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디즈니, 가족 프로그램에

‘레즈비언’ 부부 출연...논란

전통적 가족 옹호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



‘굿 럭 찰리’의 출연진들. ©Bob D'Amico/Disney Channel.

미국 디즈니 채널이 주일(일요일)에 방송되는 가족 쇼 프로그램에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부부를 출연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전역에 방영되고 있는 ‘굿 럭 찰리(Good Luck Charlie)’의 최근 편에서는 레즈비언 부부가 주인공인 찰리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는 디즈니 채널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미국이 많은 시청자들은 그동안 미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노선을 표방해 온 디즈니의 ‘탈선’에 충격을 표하고 있다.

레즈비언 부부의 출연은 작년 6월 이미 방송 계획 발표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원필리언맘즈(One Million Moms) 등과 같은 전통적 결혼과 가족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디즈니 채널측에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디즈니 채널은 이 같은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

게 됐다.

원필리언맘즈는 방송 즉시 “디즈니가 LGBT 어젠다를 퍼뜨리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디즈니는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사람들이 선택할 삶의 방식이 합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디즈니 채널측은 지난 6월 방송 계획 발표 당시 “다른 모든 디즈니의 프로그램처럼 이 방송 역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것이며 이들이 다양성과 포용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사는 지난 2011년에도 소속된 선인 애니메이션이 “적절한 스토리만 찾을 수 있다면 동성애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영화를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순현정 기자

WEA 인권대사, 알바니아 대통령에 종교자유 위한 협력 요청

토마스 슐마허 박사, 현지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 전해



토마스 슐마허 박사(오른쪽)과 부냐르 니사니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WEA

세계복음연맹(WEA) 신학위원장이자 인권대사인 토마스 슐마허(Tomas Schirmacher·국제종교자유연구소 소장) 박사가 부냐르 니사니 알바니아 대통령과 최근 면담하고 현지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알바니아는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 니사니 대통령 역시 무슬림이다.

슐마허 박사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 동안 알바니아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들의 종교자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알바니아 정부가 비교적 최근 설립된 알바니아복음연맹(AEA)을 공식 단체로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알바니아 정부와 AEA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슐마허 박사는 앞서 작년 6월에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니사니 대통령을 만나서 친분을 맺었다.

한편, 슐마허 박사는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 이전에 알바니아에 있는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현지 교회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순현정 기자

하버드대, 바울서신 온라인 강의 약 22,000명 수강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바울서신 관련 강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약 180개국 22,000명의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고 있다.

과목은 ‘초기 기독교 : 바울 서신’으로, 이 달 초 온라인으로 개설됐다. 신약 및 초기 기독교를 전공하고 이번 수업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라우라 나스랄라(Laura Nasrallah)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 바울의 서신서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를 깊이 연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 년 전에 쓰인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서신은 도덕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낙태, 동성애자들의 권익, 종교 단체 내 여성들의 리더십 등 몇 가지 이슈에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바울 사도의 시대로 돌아가 로마 제국 내 종교 집단, 권력, 건강, 엘리트와 노예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뿐 아니라, 바울의 언어가 현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비롯해 사랑, 율법, 은혜 등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은사주의적 교회, 동성애, 여성의 종교적인 리더십 등도 다룬다. 나스랄라 교수는 허핑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과정은 이 달 초 개설됐다. 바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수많은 학생들에게 압도됐다. 사람들의 댓글이 쇄해, 온라인 사이트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적인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이들을 보지는 못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식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동해병기법안, 버지니아 주하원 교육소위원회 통과



동해병기법안이 1월 30일 버지니아 주하원 교육소위원회에서 5대4로 통과됐다.

동해병기법안(HB11)이 1월 30일 오후 4시 버지니아 주하원 교육소위원회에서 5대4로 통과됐다. 하루 전날인 29일 교육소위원회 심의중 자리를 비워 4대4가 되게 했던 스타 링컨센터(공화)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져 법안통과를 결정지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은 최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주미일본대사가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동해병기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자 한국과 미국 등 전세계 한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은 통과시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모든 공립학교가 동해병기가 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버지니아주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주변 6개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조지아주 상원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하는 결의안 (SR)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결의에서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조요한 기자

얼음 추위에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

애틀랜타 교계 원로 故 고원용 목사 입관예배 드려져



애틀랜타 교계 원로 故 고원용 목사 입관예배가 27일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에서 드려졌다.

애틀랜타 교계 원로 故 고원용 목사 입관예배가 27일(월) 오후 8시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 (Memorial Park South Funeral Home & Cemetery)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애틀랜타 교계는 물론이고 남미와 캐나다, 가주 등 원근각지에서 조문객들이 발걸음 해 일평생 복음전파를 위해 힘쓴 고인을 회고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했다.

故 고원용 목사는 이달 초 캐나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건강 악화로 치료받던 중 지난 16일(목) 소천했다. 당시 캐나다는 백여년 만에 찾아온 추위로 인해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고인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해 큰 은혜를 남겼다고 한다.

고인과는 막역한 사이로 입관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무찬 목사(국제연합총회 증경 회장)는 "고원용 목사님은 작년에도 한국과 몽골, 일본, 니카라과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배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맡기고 떠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측했음이 틀림없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셨으며 마지막까지

지 믿음을 지키셨다"고 말했으며, 이어 "고인은 50년간 계시록을 연구하며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셨다. 재림의 쓰나미가 몰려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또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깨어 기도해 등불을 밝히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때에 고 목사님을 다시 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전한 엄두섭 목사(대애틀랜타한인목사회 회장)는 "고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복음화를 위해 힘썼다. 오직 말씀, 오직 선교의 열정으로 한 길을 가셨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이 시대의 순교자여,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소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최중찬 목사(성령의교회 담임)의 집례 아래 예식사, 대표기도(에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임연수 회장), 성경봉독, 말씀(정무찬 목사), 고인약력소개(이운태 장로), 조가(조영권 집사), 조사(엄두섭 목사), 추모연주(Grace Oh), 광고, 축도(김세희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앤더슨 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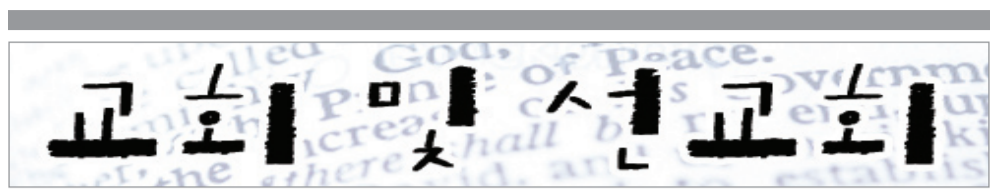
온누리드림교회, 찬틸리 새성전에서 첫 예배 드려

온누리드림교회(담임 이근호 목사)가 2월 2일 찬틸리 소재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7년 반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새성전에서 드린 첫 예배에서 이근호 목사는 "감동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벧 1: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감동을 찾으려고 한다. 본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새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세 계신교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감동이 있는 교회, 온누리드림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올 한해를 힘차게 나아

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이 목사는 "지난해 7월 31일에 교회 구입을 처음 시작했다. 100일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몇 명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고 선교지로부터 강한 기도 후원을 받았다. 건축현금을 보내주시는 선교사님, 자녀이름으로 건축현금을 한 젊은 부부, 미혼 청년의 헌금 등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전에 이곳을 사용했던 회사가 고급 원목가구들 모두 주고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온누리드림교회 새성전은 약 2만4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50여 개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부역과 친교실, 분당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조요한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 6th, LA, CA 90020 boop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스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927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일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인간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렛 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mail. isaacdeu@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와 가정의 중요성, 성경적으로 노나, 이민자사정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말리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곽부함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 2세대 목양하며, 이민 2세대 목회자를 위한, 선교와 영혼을 섬기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ang.com

뉴저지교협 신년하례예배, 연합 다짐



뉴저지교협 신년하례예배 후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가 201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찬양을 1월 26일(주일) 오후 5시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400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1부 신년하례예배는 김동욱 회장의 사회로 이동구 장로(교협부회장) 대표기도, 홍인석 목사(교협청소년분과) 성경봉독, 뉴저지 장로성가단의 찬양, 김선훈 목사(필라 교협회장) 설교, 특별기도시간 '미국과 조국을 위한 기도' 이성일 목사(내리연합감리교회), '교계와 교협을 위한 기도' 권형덕 목사(참아름다운교회), 박영주 목사(회계) 봉헌기도, 박근재 목사(총무) 광고, 양춘길 목사(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열렸다.

2부 하례 및 만찬은 총무 박근재 목사의 사회로 국가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미국가 제창, 김동욱 목사 신년사, 뉴저지 권사합창단 축하, 뉴저지남성삼합창단 축하, 손세주 뉴욕총영사 축사,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 축사 대독, 에스더 정 보좌관, 뉴욕 교협 부회장 이재덕 목사 축사, 공로패 전달 박상천 목사, 박상천 목사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욱 회장은 신년사에서 "힘난한 인생 길은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던 여정과 같다. 그러나 그 힘난한 여정은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들어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면서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배푸신 인자 하심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교한 김선훈 목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 13:14-18)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동서 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비전과 꿈을 갖고 매일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손세주 총영사는 축사에서 "한인 이민사회의 발전에 한인교회가 그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201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며 한인동포사회를 선도하는 뉴저지의 교회들이 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간관계상 1부 예배 이후 자리를 옮겼던 캐서린 도노반 버겐카운티장의 축사를 대신전한 에스더 정 보좌관은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교회의 지역사회 섬김활동을 증거했다. 뉴욕교협 김승희 회장의 해외출타를 대신해 참석한 이재덕 목사는 축사에서 "지금까지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은 많은 면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복음을 위해 힘쓴 상호우호적 단계"라면서 "올 한해도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의 아름다운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4년도 뉴저지교협 주요행사 일정. △2월 10일 목회자 부부행복학교 △2월 예정 청소년 순결학교, 호산나청소년전도대회 △3월 31일 설교클리닉 △4월 23일-25일 선교세미나 △4월 20일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5월 11일 어린이 찬양제 △5월 14일-16일 목회자 영성 수련회 △6월 예정 교협 기금 모금 골프대회 △6월 6일-8일 호산나전도대회 △7월 27일 소망음악회 △8월 4일-9일 북미원주전 선교대회 △9월 14일 청소년찬양대회

김대원 기자

여성목회자들의 역량개발 노력- '이야기식 설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임장기 교수 초청 설교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임장기 교수 초청 설교세미나를 가졌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임장기 교수 초청 설교 세미나-이야기식 설교'를 개최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미주 내 여성목회자들의 역량개발과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세워진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이번 설교세미나를 통해 여성목회자들의 목회활동에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 교육하는 등 노력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임장기 교수는 현재 뉴저지코너스톤교회를 담임하면서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ATS)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임장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가르쳐 온 실천신학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면서 '이야기식 설교'에 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임장기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이야기식 설교의 기본 구조와 정의 등을 설명한 이후 참석 목회자들이 이날 세미나의 내용을 목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하며 설교 재연의 시간도 가졌다.

임장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늘 교육하고자하는 이야기식 설교는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닌 'Narrative Preaching'으로 기존에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스토리텔링 설교와 달리,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승전결의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장기 교수는 'Narrative Preaching'의 과정에 있어 "성경을 볼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메시징인 석의적(Exegetical) 아이디어와 설교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설교적(Homiletical) 아이디어를 잘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야기식 설교란 이 설교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의적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이며, 기승전결의 구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되 반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식 설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또 이날 임장기 교수는 "오늘 전한 내용은 설교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설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망한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비롯, 앞으로도 여성목회자들의 목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미주 지역에 목회자들의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한 이후 매년 꾸준히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며 발전하고 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세계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 미주지역 지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출범된 해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금옥 목사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이후 이미선 목사가 2대 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김대원 기자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화-금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통(통)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
잠예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토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토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수술)
오후 12:00(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애틀랜타 교협, 소통과 화합 중점 둔 사업계획 발표



2014년도 애틀랜타 교협 정기 사업총회가 존스크리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임연수 목사) 정기사업총회가 28일(화) 오전 11시 존스크리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교협은 올해 1월 신년조찬기도회 및 사업총회를 시작으로 2월 교협분과위원장과 임원 수련회, 목사회 임원과의 연석회의,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 3월 기독교 언론사 방문, 4월 부활절연합예배, 교협 회장배 친선 볼링대회, 5월 원로 목사 초청 위로회 및 미자립교회 협력 방안 모색, 유소년축구대회 후원, 6월 이단대책 세미나, 7월 애틀랜타 기도의 밤, 9월 복음화대회, 10월 교협 회원 친목 등산대회, 11월 성경대학, 패밀리센터 등 각 단체 후원, 정기총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계획은 타 기관 및 단체,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 선임보고에서는 회장 임연수 목사와 부회장 한병철 목사, 평신도부회장 오대기 장로와 함께할 임원으로 총무 김성범 목사, 부총무 신윤일 목사, 서기 정윤영 목사, 부서기 유상열 목사, 회계 이순희 장로, 부회계 헬렌 김 집사를 보고 했다.

이사로는 서삼정 목사, 김정호 목사, 정인수 목사, 신용철 목사, 황영호 목사, 최병호 목사, 장석민 목사, 김영환 목사가, 감사로는 김성구 목사, 전계영 집사가 수고하게 된다.

분과위원장으로는 예배 유행의 목사, 기도 남궁진 목사, 선교전도 황영호 목사, 사회복지 김성환 목사, 성경대학 김상민 목사, 이단대책 송상철 목사, 교도소 박동진 선교사, 친교 나중옥 목사, 신학 최봉수 목사, 재정 이원석 장로, 청소년 이계선 목사, 음악 안태환 집사, 윤리 황일하 목사, 장애선교 이희양 장로, 노인복지 유근준 목사, 목회 송희섭 목사, 교육 김영준 목사, 홍보 권석균 목사, 여성복지 지수에 사모, 인권난민 박정근 목사, 체육선교 천경태 집사, 법률자문 진명선 변호사, 평신도 김순영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사업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기존 회원교회인 주님과동행하는교회의 유예복 목사가 회원으로 가입됐다.

사업총회에는 또 오영록 한인회장과 김백규 한인회관건립위원장이 참석해 한인회와의 협력사업 및 한인회관 건립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가 아닌 바로 'Here and Now'



말씀을 전하는 손기철 장로.

헤브리터치 미니스트리 대표 '손기철 장로 초청 말씀과 치유 축제'가 1월 31일(금)부터 2월 2일(주일)까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수 많은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는 중으로 알려진 손기철 장로는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은혜를 전파하고 있다.

집회 첫날인 31일 손기철 장로는 "내 삶의 처지에 묶여 있어서는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대로 바뀔 수 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소리 높여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 보자"며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현되는 것은 어려워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단 3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때 세상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손기철 장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 있다. 복음이란 단순히 나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킹덤(Kingdom)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분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기철 장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셨다. 우릴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 준 독립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 하신다'고 선포하셨다"며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손기철 장로는 UG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농무성 러셀리서치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장로,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학장 역임), 건국대 농축대학 원장, 헤브리터치미니스트리 대표, 한국장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앤더슨 김 기자

워싱턴주 한인장로회, 2014 부흥과 성시화 다짐

워싱턴 주 한인장로회는 지난 26일 켄트 컴포트인에서 2014년 신년 축복예배 및 상견례를 갖고 워싱턴 주의 부흥과 성시화를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예배와 상견례, 오바마케어 및 기독교의료상조회 건강플랜 설명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예배 설교는 시애틀교회연합

회 회장 최인근 목사가 룻기 1:15-18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연합과 모이기를 폐하고 있는 현 시대임을 지적하며 목사와 장로들이 자성해야만 축복의 변화가 오는 신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일아예배 오후 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를 나누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엘리트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김삼도 목사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45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유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r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아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 (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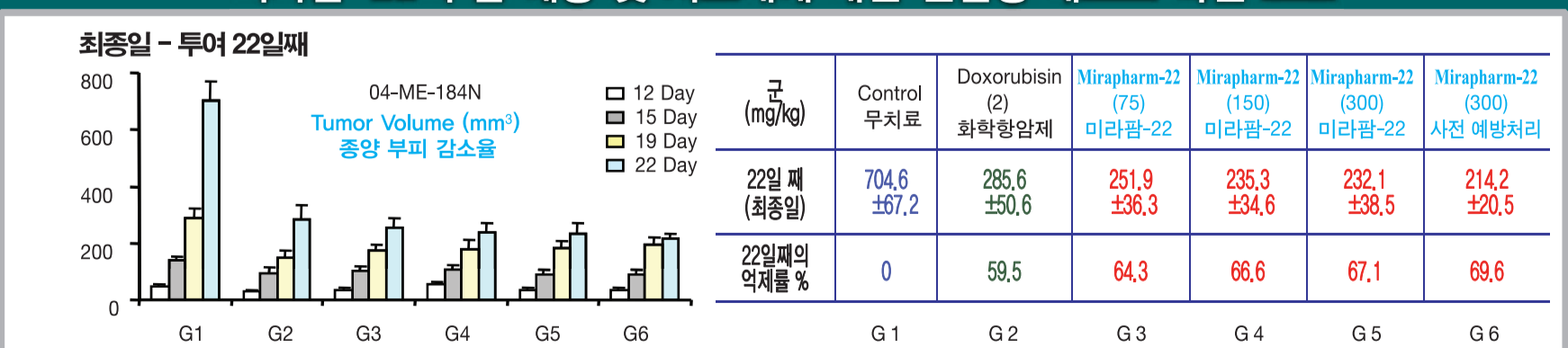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이제 ‘동성애자’ 아닌, 예수님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

복음으로 거듭나 동성애에서 벗어난 강순화 씨 ‘고백’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탈(脫)동성애 경험 을 고백한 한 여성의 사연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3일 기독교PTV C채널을 통해 방영된 간증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에 간증자로 출연한 강순화 씨. 그는 “저는 심각한 동성애자였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했다.

강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는 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빠에게 목이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저는 이 일로 아빠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고, ‘아빠는 언젠가는 나를 죽일 거야’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분노로 아빠를 죽이고 싶은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한 그 전에 집에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입에 키스를 했다.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웠다”며 “이런 사건들이 어그리진 남자상을 갖게 했고, 남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를 싫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음이 착하고 예쁜 여자 친구를 좋아하게 됐다. 스스로도 분명히 여자인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지만 강 자매의 마음속에는 ‘아빠와 다른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인기가 많았던 한 여자 친구와의 포옹에서 강 자매는 따뜻함을 느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며 좋아하던 여자 친구에게 고백을 했고 고백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됐다.

그러면서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보면 좋았더라’는 마음이 맴돌았다.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구나’하는 죄책감이 들어 괴로웠다. 그러다 20살부터는 “점점 심해지는 아빠와의 갈등으로 부모님과 상의 하에 서울로 취업하게 됐고 이때부터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동성연애를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강 씨는 “처음 시작은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언니를 좋아하게 되면서다.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는데 그 언니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 죄책감 때문에 저와 헤어지기를 원해서 6개월 후 헤어졌다”며 “그때 저는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으로 꼬드긴 것 같다는 죄책감이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다른 연하의 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 또한 밤을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다”며 “동성연애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커지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이 쏘여 오면서 온 몸이 식고 몸이 떨렸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한 2주정도 견디다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심전도도 해보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했다. 정신과에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이후 그 연하 동생과

헤어지고 약을 1년 이상 먹고 공황장애가 좋아져 약을 끊게 되면서,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공황장애란 벌을 주셨단 생각이 들어서 여성성도 회복하고 남자를 사랑해보려고 머리도 기르고 웃도 여성스럽게 입었다”고 했다.

강 씨는 ‘남자’와 만나보려고 노력했다. ‘남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연인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헤어지게 됐다’며 “지친 저는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던 동성애로 돌아가고 싶어 마침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에 가입하고 채팅을 하면서 한 연하의 동생을 만나 같이 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동생과) 근처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몇 년을 함께 하다 힘들게 헤어졌다”고 말했다.

강 씨는 “그 후 ‘그 친구는 동성애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많이 고민했고,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난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삼십이 넘어 가면서 잘 버티던 제게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다시 여러 동성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일명 번개팅을 하며 레즈비언 바와 클럽에 가게 됐다”며 “이렇게 즐기다 오는 길은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모 동성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는 기쁘게 나타났다. 남편도 있었고, 자신 말고도 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 친구도 있었다. 그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고 견디다 못한 저는 그녀와 헤어졌다”며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끊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했다.

“정말 제 세포 세포에 퍼진 악마 같은 동성애 세포를 다 파괴 시켜달라고 눈물로 처절히 부르짖었는데 정말 목숨 건 절규였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이에요. 저 이리다 지옥으로 가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긴 기도가 끝나면 무릎이 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끊임없이 지옥가게 될 두려움이 무섭게 저를 괴롭혔어요. 버스를 타도 지옥! 길을 걸어도 지옥! 너무 두려웠고 가던 길도 다시 돌아보며 정말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동성애처럼 지옥에서 절규하듯 ‘살려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강 씨는 “겨우 힘을 내어 아동복지에 대한 꿈을 갖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과 수석으로 학비를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졸업 때는 총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다.

그는 “그때 자신감을 얻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동성애를 벗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싶었다”며 “그 후 금식, 작정 기도 등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했지만 죄의 고통이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매번 결심과 결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 쾌락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그러던 중 동생네 교회에서 춘천한마음교회 영상을 보게 되며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변화된 것



동성애로부터 회복된 자신의 삶을 간증한 강순화 씨.

을 보았다”고 했다.

강순화 씨가 춘천한마음교회에 온 첫날 수요 예배때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했다. 그는 “앞부분이 딱 내 얘기였다. ‘어떻게 내가 온 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웃음만 나왔다. 그리고 간증 마지막 부분에 그 자매가 동성애를 벗어났다고 말하는 데 너무 부러웠다”고 했다.

이 교회의 기숙사에서 하루를 지낸 다음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한 자매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주님이 아닌)제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강 씨는 “마귀가 그 다음날부터 생각으로 묵묵히 괴롭혔다”며 “전에 사귀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마귀 마귀’ 올라 왔다. 그 고통 때문에 평평 울고 싶었는데 같이 사는 자매들에게 소리가 들릴까봐 사과를 입에 물고 정말 평평 울었다”고 했다.

그는 “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왜 안 변하지?”했다”며 “저는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했던 옛습관으로 뭔가 평~ 하고 다음날 오슬 부리듯 느낌으로나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바로 이때 마귀의 실체를 더 알게 됐다. ‘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선택했구나’ 깨달았다”며 “새벽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왔고, 회개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다”고 했다.

회개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녀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비웃으며 채찍질하고 손목에 못을 박는 로마병정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순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수만 가지 죄를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것 다 보셨잖아요. 그때 왜 해결해주시지 않았죠? 더 못질해도 사랑한다 말이 나올까요?”라며 또 못을 박았다고 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정말 죽어 줄

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강 자매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단어를 꺼내도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아니 단 한 번도 마음에 가득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막 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눈물샘에 고여 있던 모든 눈물들이 매일 매일 주체 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다”고 했다. 강 씨는 “사랑이 그렇게도 감금해서 세상에서 모조품 사랑을 찾아 진짜 사랑인줄 착각하고 헤맸던 것을 알았다”며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녀는 “정말 성경은 사랑의 언어였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였다”며 “죄를 지으면 너는 죽지만 사랑하는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간증했다.

“하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강 씨는 “교회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저를 괴롭혀 온 마귀를 대적해 함께 기도로 싸워줬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마귀의 밥으로 살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강 씨는 “당연히 여러 동성애 사이트에서 다 탈퇴하고 이메일 주소도 모두 다 바꿨다”며 “연락되던 동성애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설레던 마음도 완전히 끊어졌다”고 간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알리고 싶어졌다”며 “정말 이토록 무언가를 알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은 꼭 알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솟아 올라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저는 정말 동성애자라는 것을 오픈하기 싫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분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며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강 씨는 “전도현장에서 그렇게 혐오스럽던 남자들에게도 먼저 다가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 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달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동성애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오픈하니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줬어요. 저는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다. 사랑으로 저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다”고 말했다.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고 간증을 마쳤다.

오상아 기자

신타페 언어·문화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

ESL 과정

신타페 언어·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가족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원어민강사로만 모든 수업 진행.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 신타페 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562-926-1023 Director 강우종 교수 (wjkwang@ptsa.edu)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과정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 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me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좌)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트 실무)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714-576-0901, 213-909-2371

“두만강 바닥엔 성경 가득할 것... 그 고통 알리고자 했다”

북한 지하교회 다룬 ‘신이 보낸 사람’ 김진무 감독



김진무 감독.

북한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의 실상과 절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제작사 태풍코리아/대표 강명성)이 오는 2월 13일 개봉한다. 김진무 감독은 1년 간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의 실상을 고스란히 영화에 담아냈다.

김 감독은 “북한의 크리스천들은 발각되면 사상범으로 즉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된 노동과 학대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 영화는 공포체제 속에서 목숨 걸고 몰래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강압적 체제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인지 느끼게 됐고, 탈북민들의 고백을 토대로 두만강 국경지대 시골 마을 크리스천들의 믿음, 사랑, 눈물, 감동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진무 감독을 만나 작품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북한 크리스천들의 고난을 담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사실 북한 크리스천들의 삶과 인권 문제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선이 강한 영화들에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북한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의 영상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 울었다. 모태신앙인데도 그런 체험은 처음

이었다. 단지 감정적 행위가 아니었다. 마음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겨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

영화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처음에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탈북민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가 투자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제작사에 태풍코리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독립영화로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고민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도 있을 것 같다.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서의 수단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북한 크리스천의 처절한 신앙과 부서져 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한탄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생각들, 이를테면 예전에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기만 하던 미식축구팀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우승했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 스며들어 있는 기본신앙과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교파와 교단이든지 이 영화를 봤을 때 반성과 성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낙후된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물질만능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남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영혼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 이 영화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폐부를 찌르는 것이 의도이기도 했다.”

배우들이 북한 언어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는 않았나.

“배우들 모두 북한말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웰컴 투 동막골’, ‘동창생’ 등 영화에 북한말 선생님으로 참여했던 분이였다. 도움이 많이 됐다. 배우들이 배웠던 부분도 있고, 촬영 이후에는 검증절차도 거쳤다. 이 영화는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북한의 사회상을 담고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블록버스터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들도 열성적으로 함께했다.”

“리얼리즘의 관점” 에서 연출을 과장되는 부분은 잘라냈다고 들었다.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도 마찬가지로 영화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감독이 자신의 시각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신(scene)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지어야 한다. 팩트를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팩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과 은유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 뭔가 팩트를 넘어 과장되는 부분은 절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영화에서 절제는 응축으로 볼 수 있다. 응축시키고 응축시키다 보면, 마지막에 이야기를 터트렸을 때 그 폭발력과 파괴력은 더 강하다. 이런 부분에 연출자로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있다.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과장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군대 영웅담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 사회상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이 많이 섞인 부분이 있다. 저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

은 미술에서 많은 선을 그을수록 구의 형태가 선명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팩트를 그리고자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하다는 감상적 연민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경경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다. 국경경비대에 있으면 3억 벌어 나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도강하는 브로커들한테 뜯어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체제주의자도 있지만 김정만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나.

“감독이 연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무사가 칼을 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위로 구름이 지나가면서 음영이 생기고 그 무사의 심리묘사가 훨씬 더 잘 표현된다. 기다렸는데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다. 연출자는 프레임에 담아내려는 의도 이상의 것을 담아내게 될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영화에서 김인권 씨와 의논해서 느낌만 가지고 연기한 화살장 신이 있다. 김인권 씨의 그 연기는 다시 표현하려고 해도 못할 것이다. 제 시나리오의 구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칭찬하고 싶은 배우는 누구인가.

“지용석이라는 배우다. 이 영화에서는 바보로 나온다. 그 배우가 가진 에너지가 굉장하다. 내가 그 친구에게 말한 것은 ‘내가 이상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매우 잘 받아들였다. 한국에 그 어떤 연기자도 이 친구처럼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어떤 배우가 ‘감독님은 두만강 물이 마르면 그 아래 뭐가 있을 것 같은

가’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만강 신을 찍을 때었는데, 그 배우가 ‘두만강 밑은 성경책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 한 권에 위대한 힘이 있다. 모두가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의 소망을 따라서 강을 건넌다. 이 영화는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고통과 절망을 알리고, 그 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작됐다. 작금의 한국 영화계는 이런 영화를 외면하는 추세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극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틈 속에서 자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 결국에는 관객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저희 제작진 만큼이나 용기있는 관객들이 이 영화의 목격자가 돼 줬으면 좋겠다.”

김진무 감독은 상명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했고, 2000년도 ‘We are 18 years old’라는 영화로 광주국제청소년 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다큐멘터리와 장편 영화의 각본, 연출, 촬영을 모두 소화해내고 다수의 독립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후 우연히 태안을 방문했다가 사고 당시 아들을 잃은 할머니를 만나면서 탄생한 <휴일>로 대성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다. 그 후, 탈북자들과 1년 넘는 기간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의 현실을 알고 나서 <신이 보낸 사람>을 탄생시켰다. 김진무 감독은 북한 실상을 뜨거운 감동과 눈물로 담아내어 관객들과 함께 느끼고자 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라, 김준연,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하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크렌베리 중에 100배 이상 농축된 파크렌 크렌베리가 농축되고 식약청이 요로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공인한 제품이니깐 너무 좋습니다. 오줌소태, 방광염, 요실금으로 힘들주세요?
세종 요로정보감으로 잡으세요.

“이제 멀리 외출해도 자신 있어요”

오줌소태, 요실금, 전립선건강, 방광, 요로건강 개선

세종 요로정보감

주요성분 및 효능
파크렌 크렌베리, 호박액기스, 콜라겐, 마그네슘, 철분, 엽산, 건조효모 등
크렌베리종의 크렌베리 “파크렌 크렌베리”
미국 DBS(데카스보테니컬사)의 다국적연구 프로젝트과정 중 기존의 크렌베리보다 수십배의 효능을 가진 파크렌크렌베리를 개발. (미국, 영국 등 특허)
KFDA 공인내용
요로의 유해균 축적억제로 요로건강에 도움

세종요로정보감(파크렌 크렌베리) 인체시험결과
요통, 빈뇨, 하복부 통증 호소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 - 효능 입증
- 미국 크레이튼 대학의 임상으로 증명된 파크렌 크렌베리 효능 입증
참고: (영어) www.pacran.com (한국) www.pacran.co.kr

세종요로정보감은 이런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요로감염, 빈뇨, 오줌소태, 전립선장애, 방광염
- 요로감염으로 요통을 호소하는 자
- 하루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분이나 빈뇨증
- 오줌소태나 방광염으로 걱정하시는 분
- 소변의 악취나 배뇨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전립선의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
- 신장, 요로, 방광, 전립선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은 분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출주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퍼스트레이디 “갱년기 여성, 생리불순”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
高麗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엑스 생명연구 개발”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 (미주북음방송국 2층)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아가페와 필리아(1)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아가페”(agavph)는 “신적인 사랑”(divine love) 즉 “무조건적인 사랑”(unconditional love)을 뜻하는 반면에 “필리아”(φιλία)는 “인간적인 사랑”(human love) 또는 “조건적인 사랑”(conditional love)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르게”(στοργη)와 “에로스”(ερωσ)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 이들에 의하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간의 사랑”,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육체적인 사랑”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성경적인가?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스토르게”와 “에로스”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스토르게”의 경우는 φιλία와 στοργη를 합성하여 만든 형용사 filovstorgo의 복수형이 롬12:10에 나온다. 그 뜻은 Liddel-Scott의 Greek and English Lexicon에 의하면 “loving tenderly” 또는 “affectionate”인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부가적인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ερωσ의 경우는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스토르게”와 “에로스”의 구별은 성경에 근거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가페”와 “필리아”에 대한 구별은 어떠한가? 이 두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런데 성경 속

에서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말로, 그리고 “필리아”는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가페”와 “필리아”를 구별하는 이들이 오래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21:15-17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나는 짝막한 대화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 처음 두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ἀγαπάω)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φιλέω)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대답한다. 그러자 마지막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여 물으신다. 목사님들은 보통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대답한 것은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 때문에 감히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입장을 참작하여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설명 끝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희랍어 원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또는 이와 유사한 해석을 내리는 분들이 있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고, 심지어 서양고전(Classics) 즉 고대 희랍과 로마의 문화에 정통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두 동사에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해석 또는 이와 유사한 해석들은 성경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동사들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서 실제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다른 곳 적어도 요한복음 내에서는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성경적 근거 없음

요한복음에서 21:15-17 외에도 “아가파오” 동사는 20번, “필레오” 동사는 16번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가파오” 동사의 명사형인 “아가페”는 10번 사용된 반면에 “필레오” 동사의 명사형인 “필리아”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면 관계상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

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먼저 “아가파오”의 경우를 보면 3:16에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3:1에서는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15:13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에서는 명사형인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다. 이 세 경우만 놓고 보면 동사 “아가파오”나 명사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가파오”가 3:19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며”, 12:43에서는 믿는 자들 중 더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들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경우 즉 3:19와 12:43에서는 “아가파오”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들의 저급한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필레오” 동사의 경우 5:20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11:3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12:25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에, 그리고 15:19에서는 “세상은 자기에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필레오”가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사랑 또는 세상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가 인간적인 사랑을 뜻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쓰인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21:15-17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이다. 여기서 만일 “아가파오”가 신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 이 사람들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욱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 될 것이며, 베드로의 대답은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베드로는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신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었을 것인가? 그리고 “아가파오”가 신적인 사랑 즉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을 뜻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것인가? 만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들 모두가 신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사랑에 정도의 차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1)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1회)

Do you want to buy me a present?
 내게 선물을 사주기를 원하시나요?
 Yes, I do.
 네, 그렇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have?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I want two pens for my test.
 나는 시험용 펜 두 개를 원합니다.
 Do you want to drink a glass of milk?
 당신은 우유 한 잔을 원하십니까?
 Yes, I am hungry and thirsty.
 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May I buy you some food?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내가 먹을 것을 사 드릴까요?
 Yes, let's go to McDonald.
 네, 맥도날드로 갑시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시나요?
 I want a chicken sandwich.

나는 닭고기 샌드위치를 원합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1회)

No one who has faith in God's Son will be condemned. But everyone who does not have faith in him has already been condemned for not having faith in God's only Son.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people who do evil things are judged guilty because they love the darkness more than the light.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는다.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1회)

On the 24th of May, 1738, at small Moravian meeting in Aldergate Street in London, John Wesley felt his heart strangely warmed while listening to the reading of Luther's preface to Romans. The central thought of Meth-

odist theology is love: the love of God for all persons and the grace of God available to all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lone for salvation.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에 있는 얼더게이트 거리에서 행해진 모라비아인들의 작은 모임에서 요한 웨슬레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낭독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감리교 신학의 중심 사상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란 곧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존 맥스웰 | 비즈니스북스 | 344쪽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이은 '기적의 성장 프로젝트' 두 번째 책.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저자는 신학대 출신으로 다수의 기독교 서적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 성공이란 올바른 배움의 결과이므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동안 집중하고 모험하라고 말한다.



어린이 인문학 여행

노경실 | 생각하는 책상 | 184쪽

어린이들이 인문학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꼭 필요한 인문학 입문서이다. 중견 아동문학가인 저자는 인문학에 대한 폭과 깊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책에 담았다. 시리즈 첫 작품으로, 신화·미술·천문·철학 등의 분야를 담고 있어서 쉽게 인문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존 파이퍼 | IVP | 126쪽

'기독교 회락주의자'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의 4-6장을 재편집하여 엮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얻는 기쁨에 관한 책으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한다.



교회사 연구 방법론

우베 퀴네벡 외 | CLC | 341쪽

독일 신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세미나(Proseminar)를 진행한다. 책은 이 과정을 그대로 옮긴 기본 교과서 중 교회사 연구 방법론서로, 교회사란 신학과 역사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며 신학을 통합하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REVIEW

경건주의의 고전에서 '교회갱신의 길'을 찾으라

필립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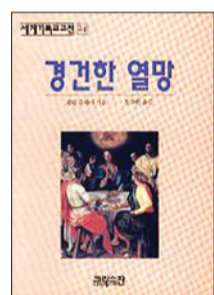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야곱 슈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는 루터교회 경건주의의 창시자였다. 그는 17세기 독일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을 썼다. 이 책은 교회 내 영적 부패를 치료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그는 부패의 원인이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슈페너는 많은 저작을 남겼으나,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해 준 최초의 작품은 <경건한 열망>이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한 출판업자가 아르트(Johann Arndt, 1555-1621)의 복음서 설교집(교회력에 맞춘 설교집, 1615년 초판 출간) 개정판을 계획하였다. 그는 슈페너에게 이 개정판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슈페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가 오랫동안 심

사숙고해 온 몇 가지를 기록하였다. 이 서문은 즉시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6개월 후 슈페너는 이 서문에 별도의 제목을 붙이고, <모든 관리들과 목회자들에게>라는 부제를 붙여 출판하였다. 이 책의 1부에서 그는 먼저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2부에서 개혁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낙심할 이유가 없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과 초대교회의 모범에서 보다 나은 교회의 상태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격려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부는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은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를 얻는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비록 매일 자신이 읽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해 두라고 했다. ② 영적 제사장직을 확립하고 부지런히 실행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기도, 감사, 선행, 구호금 등을 바쳐야 한다. ③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④ 불신자들이나 이단자들과의 종교적 논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슈페너에 의하면, 이단자들과 불신자들의 종교 때문에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논쟁을 해야 할 경우는 기도하는 마음과 냉정한 태도로 해야 한

다고 했다. 논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 논쟁은 상대방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거룩한 순종을 위해 변호되어야 진리를 적용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⑤ 목회자의 직무를 위해 합당한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으며, 모든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려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에 필요하다. 교회 안에 결절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 중에는 목회자들을 임명하는 데에서 비롯

된 것들도 많이 있다. 신학교는 성령의 작업장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의 양육실이 되어야 한다. ⑥ 설교의 목적(신앙과 열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자는 소수의 지식인들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슈페너는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을 자신들의 삶에서 보여 주고 있지 못하는 많은 설교자들을 보고 한탄했다. 그리고 강단은 자기의 재주를 자랑삼아 표현하는 곳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경건주의의 고전인 이 책이 제시한 교회개혁안은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과 갱신의 구체적 전략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송광택 목사 (충신대 평생교육원 한국교회학서문학회연구회)



경건한 열망 필립 슈페너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134쪽

혈당조절, 세포노화방지 **포르테**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뺀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얼어붙은 공주와 세상 구한 건 '에로스' 아닌 '아가페'였네

〈겨울왕국〉 엘사와 〈라이온 킹〉 심바의 '평행이론'

실 연휴, 간단에 찾아온 여유를 즐기며 영화를 보기로 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영화관에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을까 말까한 필자로서는, 〈레 미제라블〉과 〈광해〉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내린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를 봐야 이 고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을까. 천만을 넘겼다는 화제작 '변호인'과 디즈니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자 기독교적 작품이라는 '겨울왕국' 사이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필자는 후자를 선택했다. 기독교 신문에 리뷰를 쓰기에 보다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일종의 '직업병'적 계산 때문이었지만, 다행히 〈겨울왕국〉은 조금도 후회가 없을 만큼 재미있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심바가 죄책감에 도망가자, 정글엔 평화가 사라졌다.

이 글은 〈겨울왕국〉에 대한 리뷰이지만, 먼저 같은 디즈니 사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라이온 킹〉 이야기를 하고 싶다. 두 영화가 비슷한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온 킹〉의 주인공은 정글의 왕 사자, 그 중에서도 '왕 중 왕'이 될 어린 사자 '심바'다. 평화와 사랑 속에 행복하게 자라가던 심바는 어느날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무파사'를 잃고,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 자신이 다스려야 할 정글을 떠나 멀리 도망친다.

세월이 흘러 심바는 걸으로는 위풍당당한 어른 사자가 됐으나, 속으로는 사자의 형상(위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새롭게 만난 친구 미어캣 티몬과 멧돼지 폼바와 어울리고, 그들처럼 벌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하쿠나 마타타(걱정할 것 없어)"를 입버릇처럼 되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한다.

왕 중 왕이 되어야 할 심바가 죄책감 때문에 자기 형상을 잃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자, 정글은 평화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심바는 마침내 내면에 있던 아버지와 만난 뒤 죄책감을 떨쳐내고 사자의 형상을 회복해, 자기 사명과 정글의 평화를 되찾는다.

엘사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 세상과 단절했지만, 이는 결국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고통만 남겼다.

다음엔 〈겨울왕국〉 이야기다. 〈겨울왕국〉의 두 주인공이자 공주인 언

니 엘사와 동생 안나는 어린 시절 매우 다정한 사이였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던 엘사는 실수로 언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이후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킨다. 다쳤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언나는 여전히 엘사에게 살갑게 굴지만, 엘사는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매정하게 언나를



(위쪽 중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디즈니 (아래쪽 왼쪽) 어릴 적엔 다정했던 엘사와 언나. 엘사는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한 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디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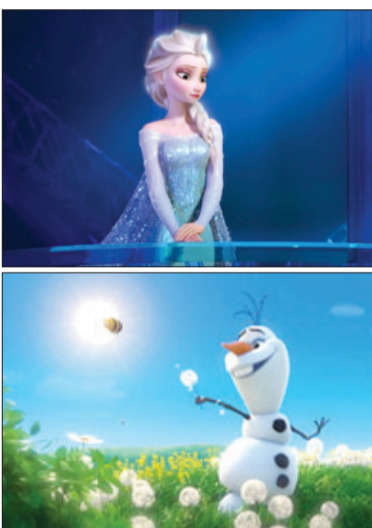
멀리한다. 그러나 엘사에게 의지가 되던 그녀의 부모도 얼마 뒤 사고로 목숨을 잃고, 엘사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그런데 여왕 즉위식 날, 엘사가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터지고, 그녀는 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가 그곳에 얼음궁전을 짓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다.

엘사는 이제야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됐다는 안도감에 "렛 잇 고(let it go; 그대로 내버려 두)"를 외치지만, 그녀가 떠나버린 왕국은 차갑게 얼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이에 동생 안나는 언니를 찾아 나서고, 두 자매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목숨을 구하며 얼어붙었던 왕국도 녹인다.

자, 그럼 이제 〈라이온 킹〉의 심바와 〈겨울왕국〉의 엘사의 이야기에 우리를 대입시켜 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셨다. 그런데 우리는, 심바의 삼촌 스카나 엘사의 이웃나라 열두 번째 왕자 한

스와 같은 사탄의 음성 때문에, 죄에 대한 자책으로 사명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낮을 피해 도망쳐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직무를 유기하며 현실에서 도피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하쿠나 마타타"나 "렛 잇 고" 같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노래하면, 몸과 마음이 당장은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값싼 은혜'로는 마음 속 깊은 곳의 상처가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



(위쪽 중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디즈니 (아래쪽 왼쪽) 어릴 적엔 다정했던 엘사와 언나. 엘사는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한 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디즈니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무법천지', '하이어나의 세상', '얼음왕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세상을 얼어붙게 한 책임은 군중들에게도 있다. 자기 안에 엘사와 같은 모습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 안에 엘사를 향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금 다르거나,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는 이들을 보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마치 예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던 군중들처럼 말이다.

엘사는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 다른 이들의 몸에 상처를 줬지만, 군중들은 정죄를 해서 엘사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왕국을 얼려버린 것은 엘사의 능력이었지만, 사실 그 능력이 발현된 이유는 그녀의 주변인들이 얼음처럼 차갑고 가시처럼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녀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증폭시켰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이들 때문에

상처 입는다고 하지만, 파지고 보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상대방이 엘사처럼 얼음궁전을 짓고 그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엘사가 정말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다면 왜 얼음다리와 계단을 없애지 않고 그냥 뒷동산에 엘사가 언나의 호소를 뿌리치고 갈 때 얼음벽에 비친 뒷모습이 '날 붙잡아 달라'고 호소하는 듯하지 않던가?



(위쪽 중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디즈니 (아래쪽 왼쪽) 어릴 적엔 다정했던 엘사와 언나. 엘사는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한 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디즈니

안나는 엘사를 구했고, 엘사는 언나를 구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상처 입은 '엘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진부하지만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답, 그렇다. '사랑'이다. 그런데 매우 주목할 점은, 이 〈겨울왕국〉은 '에로스(육체적 사랑)'와 '아가페(절대적·헌신적 사랑)'를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자가 생전 처음 보는 공주에게 흠뻑 반해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키스를 퍼붓고는 공주와 왕국을 구한다거나,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갑자기 각성해 인류를 구원한다거나 하는 뻔한 동화나 히어로물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겨울왕국〉에서는 이 아가페적 사랑을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엘사의 얼음궁전에 찾아갔다가 심장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언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용한 트롤 의원(?)'의 진단에, 당사자들도, 주변 인물들도, 관객들도, 곧 '남주(남주인공)의 키스'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충격적(!) 반전이 벌어졌다. 언나가 위기에 처한 엘사를 보고는, 남주의 키스로 마다한 채 자기 목숨을 내던져 언니 엘사를 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자 언니도 '진정한 사랑의 행동'을 깨닫고, 이에 동생도 왕국도 되살아나게 된다.

나와 너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언나가 엘사를 향해 보여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다.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요 아가페(에로스가 아닌!)다. 그것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여, 그 사랑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빛과 온기로 서로를 비추고 녹여줘야만 이, 어둠과 얼어붙은 세상이 밝아지고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상대뿐 아니라 나까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돌(트롤)들이, 심지어 눈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선포하지 않던가!

김진영 기자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내용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전화 213-700-9212
문의 www.christianmutual.org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아채만두

• 고기만두

• 올만두

• 김치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스룸 오픈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shin@winhyundaicarson.com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새해맞이 고객 대세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사랑 감사 대세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적의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HQ구연산 고객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고객님들께 사상 최저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써 고발 대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
프로모션 A \$360 \$100 No Tax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프로모션 B \$3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
프로모션 C \$36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닌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 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제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안,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찾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궜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 나옴.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말라 가지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간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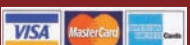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신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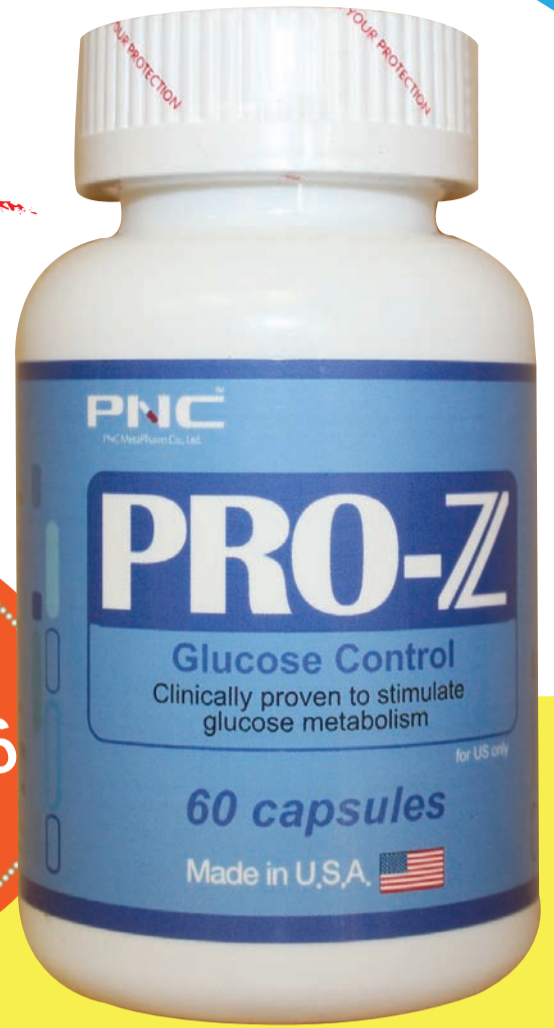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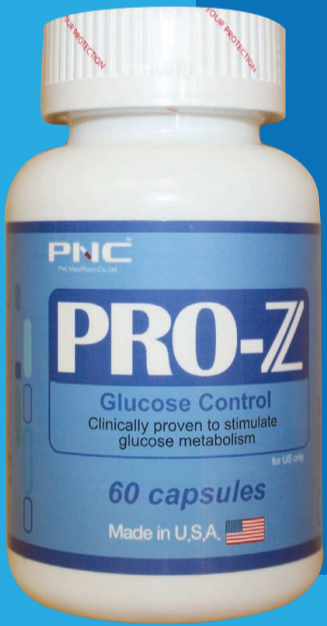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박 OO 목사(당뇨 2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인슐린 주사도 끊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고박고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여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지 셀러 모집중

프로지 판매처

당뇨 전문 치료 한의원
실로암 한의원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621 S. Virgil ave,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